

탈북학생 대상 중학교 국어 교과서 개발 방안

원진숙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I. 서론
- II. 탈북학생용 국어 교과서 개발의 전제
- III.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 교과서 개발 방향
- IV. 결론

I. 서론

본 연구는 통일 대비 국어 교육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탈북학생 대상 중학교 국어 교과서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암울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급증하여 2014년 6월 현재 약 26,85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학령기 탈북 아동과 청소년들의 수도 크게 늘어서 초등학교 1,128명, 중학교 684명, 고등학교 371명으로 탈북학생¹ 수가 총 2,183명에 이르고 있다.

탈북학생들은 장기간의 학습 공백과 탈북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상처와 정서적 불안 문제², 경제적 빈곤, 북한과 다른 남한의 교육 제도, 학교 문화,

-
- 1 북한이탈주민재원재단(2012)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탈북학생 가운데 북한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은 5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북한 사회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절대 다수의 탈북학생들이 북한에서 아예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상당 기간을 중국이나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제3국을 떠돌면서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아예 한국어조차 잊어버리는 학생들의 수도 상당수에 이른다.
 - 2 이향규(2007)는 탈북학생들이 탈북 과정을 통해 짖주림, 탈출과 은신의 경험, 가족 해체와 같은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탈북학생

교육 내용, 학습 용어 등의 차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 제재 및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탈북학생의 이러한 학습 부진 및 학교 부적응 문제가 탈북학생의 학업 중단³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탈북학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70년 동안 남한과 북한의 달라진 교육 제도와 내용, 문화, 언어 이질화 정도 등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탈북학생들을 ‘교육계의 먼저 온 미래’로 인식하고 통일 후의 남북한 교육 통합을 대비하는 국어 교육 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장차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통일에 대비하여 ‘교육계의 먼저 온 미래’인 탈북학생들의 학교 적응 및 국어 교과 적응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육 체제 속에서 이들을 ‘통일 미래 인재’로 육성해 나갈 수만 있다면 그야 말로 가장 강력한 통일 대비 국어 교육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통일 대비 국어 교육 기반 구축 차원에서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제 까지 탈북학생의 학교 및 사회 적응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돋는 연구는 있었지만 이들을 위한 국어교육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으며, 특히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전

의 학교 적응 문제는 학업 결손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치유’의 측면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 3 탈북학생들의 높은 학업 중단율은 장차 우리가 떠안아야 할 사회적 비용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학교 생활 적응 및 학습 부진 문제는 국가 교육 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탈북학생들의 학교 중도 탈학률은 초등학교에서 0.9%, 중학교 8.7%, 고등학교 9.4%로 일반 학생들(초등학교 0.4%, 중학교 0.8%, 일반고 1.2%, 전문고 3.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상급 학교로 갈수록 그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0: 32-34)에서는 이렇게 탈북 학생들의 학교 중도 탈학률이 높은 이유로 교육 내용 및 교육 체제, 학습 방식의 차이, 탈북 청소년들의 낭만 생활에 대한 불안감, 문화·이념·가치관의 차이, 정서적 고립감과 같은 심리·정서적 이유, 탈북 청소년을 전담하는 전문 교사 및 제도의 부족, 탈북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미비 등을 들고 있다.

무한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통일 대비 국어 교육의 문제를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중학교 탈북학생용 <돋움 국어 교과서>⁴와 연계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남한과 북한의 분단 70여 년 만에 우리 사회에 ‘먼저 온 미래’인 탈북학생을 위한 맞춤형 국어 교과서 개발 작업은 단기적으로는 탈북학생의 국어과 학습 적응을 지원하는 보충 교재 개발의 성격을 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하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국어 교육의 기반이 되는 표준 교재 개발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남북한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통일 대비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 개발 작업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분단 70년 동안 서로 달라진 남북한의 언어 및 국어교육의 이질화 양상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탈북학생들이 북한에서 배우고 사용해 온 언어가 남한의 언어와 어떻게 다른지, 북한의 국어교육은 그 목표와 내용, 방법 면에서 남한의 국어교육과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 자료에 기대어 정리한다. 또한 탈북학생의 국어과 학업 성취 특성과 이들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통일을 대비하여 개발한 <2012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과 표준안>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4 중학교 탈북학생용 <돋움 국어 교과서>는 현재 본 연구자가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연구 용역을 맡아 중학교 인정 교과서 형태로 개발 중에 있다.

II. 탈북학생 대상 중학교 국어 교과서 개발의 전제

1. 남북한 언어 및 국어교육의 이질화

1)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의 차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70년을 지내 오면서 남한과 북한은 같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사용 면에서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홍종선(2013)은 이러한 언어 이질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남과 북의 언어관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남한에선 언어가 ‘표현과 이해의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 교시에 바탕을 두고 언어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완수하는 가장 힘있는 도구’ 내지 ‘혁명과 건설의 힘 있는 무기’(<조선문화어 건설리론> 2005: 13) 라고 보는 것이다.

1966년 김일성 교시에서 평양말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어’를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로 친명한 이후, 북한은 본격적인 ‘말 다듬기 사업’을 추진한다. 언어를 통한 자주성과 창조성을 강조하고, 민족어 안에 침투해 있는 사대주의적 요소를 철저히 척결하여 언어를 혁명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이른바 문화어 정책을 대대적인 말 다듬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것이다. 다음 <예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말 다듬기 사업은 한자어를 폐지하고, 한자말과 일본말, 외래어를 순수 우리말로 대체하고, 적절한 고유어가 없을 때는 그 뜻을 풀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말 다듬기 작업으로 인해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에게 생소한 어휘들이 생겨나고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 현상⁵은 더욱 가속화된 것이다.

5 북한의 문화어와 우리의 표준어는 같은 어휘라 할지라도 그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남한에서는 친구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동무’라는 어휘를 북한에서는 사상이나 이념을 같이하는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

〈예 1〉 말 다듬기 운동으로 달라진 어휘들

- 도시락 - 꽈밥, 야맹증 - 어둠눈, 돌풍 - 갑작바람, 나이테 - 해돌이, 샷대질 - 손 가락총
- 투피스 - 동강옷, 노크 - 손기척, 뉘앙스 - 뜻빛갈, 포스터 - 선전화, 뮤지컬 - 가 무이야기, 안전벨트 - 박띠
- 틀림없다 - 거의없다, 맞벌이가정 - 직장세대, 소형차 - 발바리차, 배웅하다 - 냄내다, 창피하다 - 열스럽다

북한의 문화어와 남한의 표준어는 어휘뿐만 아니라 발음과 표기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를 ‘역사’로, 요리사를 ‘료리사’, 낙원을 ‘락원’으로 발음하고 표기한다. 또한 북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이시옷 표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냇가를 ‘시내가’로, 깃잎을 ‘깨잎’으로, 콧소리를 ‘코소리’로 표기한다. 억양과 어조 면에서도 남한의 표준어는 대체로 부드러운 어조에 낮은 억양을 쓰지만 북한은 단어나 어절을 끊어서 단호함을 주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억양을 써서 말투가 거칠고 전투적인 인상을 준다.

요컨대 우리의 표준어는 언어의 자율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오면서 외래어가 많이 유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반면, 북한의 문화어는 국가 주도하에 강력하게 언어를 혁명의 도구적 차원에서 개조하고 인위적으로 말을 규범화시키면서 언어 이질화 현상을 가속화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2) 남북한 국어교육의 이질화

남한과 북한은 무려 70여 년간이나 분단 상태에서 각기 독자적으로 국어교육 체제를 구축해 온 결과 국어교육의 목표와 성격은 물론 내용과 방법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박영목·이인제(1998)는 이제까지 북한의 국어교육 현상이나 통일 대비 국어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는 북한의 언어에 관한 사실적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어 왔거나 북한의 국어

교육 현상을 밝혀내는 데 치중되어 옴으로써 바람직한 통일 대비 국어 교육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은 바람직한 통일 대비 국어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북한의 언어나 국어교육 현상에 대한 실태 파악 차원을 넘어 북한의 국어교육 실상을 우리의 국어교육과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점에 주목하여 현실적인 간극을 좁혀 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절에서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남한과 북한의 국어교육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현실적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 개발의 방향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1) 국어교육의 목표

북한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견결한 혁명 전사 양성’을 모든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의 국어과 교육과정 역시 정치사상 교양 고취 및 김일성 부자 우상화를 위한 도구적 차원에서 존립해 왔다. 북한의 국어교육 목표는 다음 ①과 같다(이인제·민병곤·이재기, 2002에서 재인용).

① 우리말과 글을 통하여 학생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 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우리말과 글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어 즉 혁명적 정서와 사고력을 키워줌으로써 그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 혁명 인재,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 전사로 키우는 데 있다(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1984: 3).

혁명적 세계관에 투철한 공산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국어교육은 다음 ②와 같이 국어의 창의적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강조하는 남한의 국어교육 목표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②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누리면서 국어의 창의적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교육과학기부술부, 2011: 3)

①과 ②의 국어교육 목표 진술을 통해 우리는 남한의 국어 교육이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 신장에 목표를 두는 데 비해서 북한의 국어교육은 ‘견결한 혁명 전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사상 교과로서의 정체성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국어교육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기능은 김일성 주체사상 교양을 주입하고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가치가 있을 뿐,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하고 정서를 함양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인간 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의 국어교육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결국 북한의 국어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혁명적 세계관에 투철한 공산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인재 양성이라 할 수 있다.

(2) 국어 교과서의 내용

남한과 북한은 국어 교과서의 내용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다음 <예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의 국어 교과서 내용은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의 국어 활동과 국어 문법, 문학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유형의 말과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기,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어 생활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하는 태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의 학습 제재도 문학의 심미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문학성 높은 작품이나 고전 작품, 여러 가지 다양한 제재글들을 중심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되어 있다.

<예 2> 남한의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단원명(박영목 외, 천재교육 출판사)

1. 밀하는 이와 말하기 방식 - 꽃가루 속에/섶섶이 보이는 방, 동백꽃, 대화 나누기
2. 관점과 윤리 - 관점을 비교하며 읽기, 쓰기 윤리에 대하여
3. 음운 변동과 어휘 - 음운의 변동, 어휘의 유형, 단어의 의미 관계
4. 해석과 질문 - 상상의 세계, 토끼전, 질문하며 읽기 -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5. 정보의 구성 - 강연 듣고 발표하기, 보고서 쓰기

이에 비해 북한의 국어 교과서는 주체사상,⁶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 혁명 정신의 함양을 위한 내용 일색으로 되어 있다. 다음의 <예 3>은 북한의 인민학교 1학년 1, 2학기 국어 교과서에서 취한 어휘 사례들이고, <예 4>는 북한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단원명이다.

<예 3>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의 어휘 사례 예시(전수태, 1992)

- 김일성 부자와 그 가계에 대한 찬양과 호칭: 원수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 체제를 반영하는 용어: 만수무강, 충성심, 개선문, 붉은 넥타이, 공화국 기발, 만경봉호
- 군사용어: 나무총, 꼬마땅크, 유격대, 비밀련락, 유격대원, 총알, 고지, 기관총, 수류탄, 전사답다, 총질하다, 불벼락을 끄붓다
- 혁명 정신을 앙양하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용어들: 미국놈, 쳐부수다, 까부시다, 쓸어눕히다, 남조선, 남녘땅, 북녘하늘, 헐벗고 굽주리는 남조선 동무들, 그놈의 대가리를 내려치다, 미제승냥이놈들, 원쑤놈들, 원쑤놈의 불구멍을 가슴으로 막다

<예 4> 북한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단원명

불후의 고전적 명작<축복의 노래>, 배움의 천리길, 총소리, 로동을 사랑하고 일

6 주체사상은 인류의 역사를 인민 대중이 자주성을 획득하기 위해 계급적·민족적 억압에 대한 투쟁의 역사로 파악한다(강선주, 2014: 4 재인용).

하기 좋아하는 품성을 키우자, 강으로 간 봉어, 조국의 미래가 웃고 있었네, 난
로불, 조국의 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인민군대 아저씨에게, 우리 당의 그 이
름, 장군님과 소년들, 모내기를 제 철에 와다닥 해제끼자,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혁명의 높은 뜻을 새기며, 천교령의 눈보라, 소년단
조직 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는 기품을 세우겠다, 꼬마대장, 혁명 가극 꽂 파는 처
녀, 나는 나는 김정일화 제일 좋아요, 이 세상 끝에서 끝까지, 고구려의 명장 을
지문덕

〈예 3〉과 〈예 4〉는 북한의 국어 교과서가 김일성 부자와 주체사상에 대
한 찬양, 사회주의 혁명, 반제반미 투쟁 교육 일면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
음을 보여 준다. 남한과 북한은 이렇게 국어 교과에 대한 성격 규정이 다르
고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 보니 교과서의 학습 제재와 내용면에서도 동질
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3) 국어교육 방법

남한과 북한은 국어교육 방법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국어 교
과의 주요 하위 영역별로 주요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읽기

남한의 읽기 교육은 글을 잘 읽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전략 등을
읽기 전-중-후의 과정 중심 방법으로 가르친다. 이에 비해 북한의 읽기 교
육은 읽기 제재의 내용을 단순 수용하는 데 중점을 두며 무조건적인 낭독 및
암송 활동을 통해 읽기 제재에 반영된 정치 사상적 내용의 내면화에 주안점
을 둔다. 북한의 읽기 교육은 주로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 관련 제재나 혁명
사상과 관계된 읽기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읽고 전달하도록 하는 살려 읽기
등 낭독 중심으로 선정되고, 읽기 제재 관련 독해 활동을 하지 않는다(이인제
외, 2002: 217-220).

② 쓰기

남한의 쓰기 교육은 다양한 쓰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쓰기 지식과 기능, 방법을 아이디어의 생성, 조직, 표현, 고쳐쓰기와 같은 일련의 쓰기 과정을 중심으로 가르침으로써 평생 글쓰기를 즐겨 하는 생애필자를 길러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에 비해 북한에서는 문장 수준의 기계적인 단순 반복 훈련의 짧은 글짓기 지도가 이루어질 뿐 창의적인 글쓰기, 감상, 토론, 논술문 쓰기 지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쓰기 교육 경향은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자유롭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보다는 교육된 사상을 정해진 틀에 따라 재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실제 북한에서의 쓰기는 일정한 주제와 틀이 있어 모든 글쓰기의 마지막에 수령에 대한 찬사를 넣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빠져 있으면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권순희 외, 2012: 77).

③ 말하기와 듣기

남한의 말하기 듣기 교육은 대화, 연설, 토의, 토론 등 다양한 유형의 담화 상황에서 맥락을 고려하면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비해 북한에서는 정보의 명확한 전달과 이해를 중시하는 의사전달 관점에 치중하고 있다(김혜정, 2013). 말하기 교육은 북한의 주체사상, 김일성이나 김정일 우상화와 관련된 사상 교양 말하기를 주된 내용으로 다룬다. 북한에서는 말을 할 때 발화 목적에 따라 억양을 다양화함으로써 효과를 높이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적극적으로 의도된 억양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소리마루(말소리의 높이, 길이, 세기, 억양, 끊기, 속도, 울동성 등 '운율'에 해당하는 북한말)를 강조함으로써 선동적이고 전투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양수경·권순희, 200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언어관과 언어 정책으로 인해 언어 및 국어교육의 이질화 양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 교과서 개발 작업은 물론이고 장차 통일 이후의 국어교육 정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한국이라는 공통의 언어와 한글이라는 문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질성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동질성에 주목함으로써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 교과서는 공통의 언어와 한글이라는 문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동질성을 기초로 하면서도, 남북한 국어 교과의 용어와 개념 등의 ‘서로 다름’에 주목하여 그 간극을 최소화하면서 국어 교과 본연의 보편적인 목표인 창의적 언어 사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에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탈북 학생의 국어과 학업 성취 특성

탈북학생들의 학교 및 사회 적응에 관한 앞선 연구들은 한결같이 이들이 정착 초기에 남북한의 언어 차이로 인해 학교 생활 적응은 물론 국어 교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탈북학생들은 생소한 단어나 발음과 억양 차이, 어휘의 의미 차이(정경일, 2002)나 외래어로 인한 어려움(문금현, 2006), 교과목 내 전문 용어와 내용의 차이(길은배·문성호, 2003)나 교수 학습 과정에서 쓰이는 단어의 차이(이수연, 2008)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한만길 외(1999)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탈북학생들이 국어 과목을 어려워하는 주된 이유로 작용한다.⁷

탈북학생들이 남한의 학교에서 국어 교과 학습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들은 심각한 학습 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7 탈북학생은 또한 남북한 교육 내용과 방법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향규 (2007: 11-14)는 탈북학생이 주요 교과에서 학력 결손이 두드러지는 이유로 과목의 기본 관점 차이, 남한과 다른 북한의 교과 전문 용어들, 남한의 문화나 자본주의 사회와 관련된 교육 내용의 물이해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수연(2008)은 탈북학생이 모둠 활동 방식과 같이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과 공동작업이 요구되는 교수 학습 상황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교육적 대처가 필요하다. 좀 오래된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김미숙(2004)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국어기초학력 검사를 실시했는데 기초학력 획득 기준인 60점 미만을 받은 학생이 초등학생은 17.9%, 중학생은 42.3%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탈북학생들의 국어 기초 학력이 매우 낮으며, 교육 내용이 심화되는 상급학교 일수록 탈북학생들이 국어 교과 학습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국어과에서 심각한 학업 부진을 겪고 있는 탈북학생의 실태는 최근 2011년도 초6, 중3, 고2 국가 수준 국어과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탈북학생의 국어과 학업 성취도를 분석한 김영란(2013)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표 1>에 의하면 탈북학생은 전체 학생에 비해 우수학력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기초 학력의 비율이 2-3배 이상 높으며 기초 학력 미달의 비율은 7-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교육 내용이 심화되는 상급 학교일수록 탈북학생의 우수학력 비율이 낮아지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1. 성취 수준별 비율과 평균 척도 점수(김영란, 2013에서 재인용)

성취수준	초6		중3		고2	
	전체	탈북	전체	탈북	전체	탈북
우수학력	40.80	10.95	31.04	8.24	33.08	4.23
보통학력	42.13	43.07	50.31	31.76	52.1	35.21
기초학력	16.43	38.69	17.23	48.24	12.85	46.48
기초미달	0.64	7.30	1.41	11.76	1.97	14.08
평균척도점수	201.71	178.76	206.48	172.58	207.5	175.90

김영란(2013)은 또한 두 집단 간 정답률 차이가 큰 문항 분석을 통해 탈북학생들이 국어 교과 학습 면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요인들로 문법에서는 남북한 간에 상이한 문법 용어 등의 교육 내용, 읽기의 경우는 익숙하지

않은 소재나 주제의 글, 또는 많은 양의 정보를 활용해서 답지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 유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앞선 연구들에서 밝혀진 탈북학생의 국어과 학업 성취 특성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탈북학생 및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FGI는 연구자가 경기도 A 시에 위치한 H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H 중고등학교는 남한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학생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기숙형 특성화 학교다. 면담 조사에 응한 면담자는 H학교의 선생님 4인—K 교사, Y 교사, H 교사, L 교사—과 탈북학생 P(중학교 1학년, 남학생), J(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으로 모두 6명이었다. 본 FGI는 탈북학생들이 어떤 점에서 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교사 대상 심층 면담 1회, 국어 수업 참관 후 학생 대상 심층 면담 1회를 각각 실시하였는데, 사례수가 적다는 점에서 면담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면담 대상자들이 다년간 탈북학생을 가까이에서 집중적으로 지도해 온 국어 교과 중견 교사들이고, 탈북 후 학교 적응 및 국어과 학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학습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면담 결과가 앞선 연구를 통해 확인된 탈북학생의 국어과 학업 성취 특성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은 H중고등학교 탈북학생 교육 관여 주체를 대상으로 한 FGI 결과를 토대로 탈북학생의 국어 학습 양상 및 교육적 요구를 범주화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1) 학습 결손으로 인한 국어 교과 기초 학습 능력의 부족

북한에선 아이들이 인민학교 4학년이 되면 노력 동원이 되면서 공부를 못해요. 여기 오는 아이들은 대개 중국 쪽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출신이 많아요. 2007년도까지 내려온 아이들의 70퍼센트가 다 그쪽 아이들이에요. 이쪽 아이들은

학교가 70퍼센트 정도 폐쇄되어 있어서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온 아이들 기초 학력 검사 하면 약 60퍼센트가 탈락합니다. 차츰 평양이나 대도시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양강도 자강도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집중도가 낮고 앞 단계에서 공부한 내용과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요. 이러니 대단원 중심 체제로 된 우리 남한의 국어 교과서를 따라 갈 재간이 없지요. 긴 시간의 학습도 감당하지 못해요. 한 시간 이상 공부를 버텨내지 못합니다.(K 교사)

대부분의 탈북학생들은 북한에서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3국 등을 통한 탈북 과정을 통해서도 상당 기간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남한으로 입국하게 된다. 탈북학생들은 장기간의 학습 결손으로 인해 국어 교과 기초 학습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집중도가 낮아 앞 단계에서 공부한 내용과의 연관 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대단원 중심 체제로 된 남한의 국어 교과서가 이들에게 상당한 학습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 어휘 능력의 부족

저한테 국어는 공포예요. 산같이 높고 힘들어요. 북한에서는 밀만 알면 보고 읽고 다 쓸 수 있는데 여기 오니까 같은 것도 다르게 말하고 표현이 달라요. 일상적인 단어나 한자어로 된 사자성어, 외래어도 많이 나오고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난 생각할 때 중국말이 먼저 생각이 나고요.(P, 중학교 1학년, 남학생)

탈북학생이 국어 수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바로 어휘에 관한 것이다. 남북한 언어 이질화로 인해 파생된 어휘 차이 및 장기간의 학습 결손으로 인해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이나 사고 도구에 등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근간으로 하는 외

래어에 익숙한 탈북 학생에게 영어를 근간으로 하는 남한식의 외래어나 한자어로 된 사자성어는 처음 접하는 것들이어서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어휘는 사소한 어휘라도 뜻과 용례를 풀어서 설명해 줘야 합니다. 특히 학습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글자는 읽어도 정작 그 뜻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원에 관련되는 내용은 도입부에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원명이 <대화로 여는 소통의 세계>라면 아이들은 ‘대화’라는 말, ‘소통’이란 말의 뜻부터 차근히 풀어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H 교사)

절대적인 어휘력 부족으로 탈북학생들은 읽기 지문을 독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탈북학생을 지도하는 현장의 교사들은 단원과 관련되는 주요 학습 용어는 물론 사소한 어휘라도 뜻과 용례를 풀어 설명해 주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 교과서는 일반 학생을 위한 국어 교과서와는 달리 전략적으로 관련 어휘나 주요 학습 용어에 대한 개념을 친절하게 정리해 주는 방식으로 개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3) 배경지식의 부족

우리 아이들은 교재의 내용을 50퍼센트밖에 소화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아이들의 60퍼센트 이상은 쓰기가 안 되고요, 글을 읽기는 읽는데 뜻은 모릅니다. 그저 글자만 읽는 것이지요. 어휘에 대한 개념도 없고, 독해에 필요한 기초적인 배경 지식의 부족으로 읽기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아이들에게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냐고 물어보면 다 알겠다고 답하지만 믿으면 안 돼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존심 때문에 이해한다고 말하니까요. 그냥 이 아이들을 이제 막 한국에 온 다문화 아이들이다 생각하고 차분히 지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면 40년 전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든가요. 겸인정 교과서 당연히 안 맞

습니다. 내용을 많이 줄이고 정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Y 교사)

남북한 국어 교과서의 교육 제재와 내용이 다른 까닭에 대부분의 탈북 학생들은 남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탈북학생들은 읽기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이나 남한의 중학생들은 이미 초등학교 수준에서 배운 기초 선수 학습 요소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까닭에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탈북학생들은 이미 이전 초등학교 단계에서 배웠어야 할 지식들을 거의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아이들에겐 주입식으로 또래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잘게 쪼개서 빨리 가르치는 방식으로 내용을 따라잡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가르치면 따라오질 못하니 최소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 알기 쉽게 잘 정리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L 교사)

탈북학생들은 일반학생들과 달리 배경지식의 부족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장 교사들은 탈북학생들에게 일반 학생용 국어 교과서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 수준에 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학습 요소 중심으로 교수 학습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제시하는 맞춤형 국어 교과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4) 수업 방법의 차이로 인한 학습 적응의 어려움

북한에서는 선생님이 우리한테 과제를 주고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옆에서 지도해 주는데 여기 선생님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다-다-다-

다- 쪽쪽이처럼 설명해 주고 넘어가는데 나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선생님은 이미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사실 난 하나도 모르는데요. 또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 보라는 숙제나 친구들과 모둠 토론을 해 보라고 할 때는 진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 말도 없는데 말이에요. 시험 볼 때도 ‘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관계가 적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는 뭘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J, 중학교 2학년, 여학생)

북한에서 교사 주도의 주입식 학습과 암기에 익숙한 탈북 학생에게 남한의 자율적인 학습자 중심 교육 방식은 또 다른 어려움의 원인이 된다. 대단원 중심 체제로 된 남한의 국어 교과서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이끌어 내고 이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생각을 글로 표현하거나 토론을 하도록 하는 심화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평가 방법 면에서도 북한은 모든 평가가 주관식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는 반면 남한에서는 OMR 카드에 선다형 문제에 대한 답하기, 보기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기, 빙칸 채우기, 단답형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시험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탈북학생과 이들을 가르치는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FGI 결과, 대부분의 탈북학생들은 장기간의 학습 결손으로 인해 절대적인 기초 학습 능력과 어휘 능력은 물론 텍스트 독해에 요구되는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국어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 교과서 개발 작업에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과서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절에서는 탈북학생 대상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현실적으로 학습자의 부족한 기초 학습 능력을 최대한 고려하여 심화 학습을 유도하는 대단원 체제로 구안된 일반 국어 교과서와 달리 그 학년 수준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최소한의 교육 내용을 잘게 쪼개서 명확하게 교수하는 소단원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점, 단원의 학습 내용과 관련해서 이미 초

등학교 단계에서 배웠어야 할 선수 학습 요소를 도입 단계에 체계적으로 제 공해 줌으로써 학습 결손을 최대한 빨리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부족 한 어휘 능력 및 배경 지식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남북한 어휘의 의미 차이 와 사용법, 서로 다른 용어와 개념의 이해를 위한 정보 및 제재 텍스트 이해 에 필요한 배경 지식 등을 함께 제공해 주는 방식의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I.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 개발 방향

1.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의 성격

1) 보충 교재 vs. 표준 교재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 교과서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의 성격은 크게 보아 이들의 학습 부진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보충 교재의 성격과 통일 대비 국어교육을 준비하는 차원의 표준 교재의 성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은 오랜 분단 상황을 거치면서 서로 다른 언어관과 언어정책, 국어교육의 지향점으로 인해 언어의 이질화는 물론 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면에서 그 어떠한 공통점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질화는 학생들의 언어 생활의 차이는 물론 언어 의식이나 세계관 형성에 심각한 차이를 갖게 함으로써 장차 통일 이후에도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통일 대비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 교과서 개발 국면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원론적으로 국어교육을 통한 남북한 언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한에서의 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보다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차이점에 주목하여 이 다름을 포용하고 상호보완적인 통합을 지향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접근을 하기에는 남북한 국어교육의 체제나 내용 면에서 공통점이 너무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 대비 국어 교과서 개발 작업 국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반은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라는 공통의 언어와 한글이라는 문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는 이러한 공통의 언어와 문자를 기초로 70여 년 동안 서로 이질화된 남북한의 어휘 요소들을 중심으로 그 서로 다름의 차이에 주목하여 서로 다른 어휘를 무조건 남한의 것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한에서는 이렇게 쓰이는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대등하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의미와 활용 면에서의 간극을 줄여 갈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 대비 국어 교과서 개발 작업은 이념의 벽에 갇혀 혁명주체사상을 과급하는 도구로 전락한 북한 국어교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개인의 창조적인 국어 사용 능력 신장과 발전 지향적인 국어 문화 창조 기반을 제공하는 보편적인 언어 교육을 강조하는 표준 교재의 성격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는 현실적으로 일반 학생에 비해 국어 교과 학습 면에서 심각한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탈북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맞춤형 보충 교재의 성격도 함께 지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적 특수성에만 갇혀서 탈북학생의 국어 학습 부진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충실한 교재에만 급급한다면 자칫 낯선 어휘나 학습 용어에 대한 학습,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 기능 학습 등을 강조하는 일반 학습 부진아 대상 교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교과서가 될 우려가 있다.

현시점에서 필요한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는 이들의 부족한 국어 능력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보충 교재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분단 70여 년간 이질화를 겪어 온 남한과 북한의 언어의 간극을 줄이고 국어 교육 본연의 보편적인 교육 목표에 충실한 통일 이후의 국어 교육을 준

비하는 표준 교재의 성격을 함께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본고의 입장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2012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과 표준안>에 의해 서도 지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를 <2012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과 표준안>에 기반하여 그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로 한다.

2)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의 교육 목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탈북학생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필요한 학업, 심리 및 정서, 문화 등 다차원적 영역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및 개별 학생의 요구를 토대로 하는 맞춤형 교육 지원 차원에서 <2012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과 표준안>을 개발하였다. <2012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과 표준안>은 본격적인 통일 대비 국어과 교육과정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 이후의 국어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한 최초의 국어과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2012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과 표준안>은 남북한의 학제, 교육과정, 교과서, 학습 내용, 교과 용어 등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도출된 차이점을 고려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 요소를 포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인정된다.

<2012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과 표준안>은 본격적인 통일 대비 국어과 ‘표준’ 교육과정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장차 통일 이후의 ‘표준적인’ 국어교육의 방향성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모색한 최초의 교육 과정 문서라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통일 대비 탈북학생용 국어 교과서 개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본 연구의 일차적인 준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2012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과 표준안>은 탈북 학생들의 남한 사회 및 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과정, 학교 제도 교육으로 옮겨 가기 위한 디딤돌 기능의 교육과정, 남한 국어과 교육과정을 표준과 근본으로 삼는 특수 목적의 개량 교육과정의 성격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심각한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탈북학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보충 교재로서의 탈북학생용 국어 교과서 개발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준거로 삼을 만하다.

〈2012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과 표준안〉은 통일 대비 탈북학생 대상 국어교육의 목표로 다음의 네 가지를 설정하고 있다.

- (1) 남북한 언어 차이를 이해하고 남한의 발음과 억양, 어휘 등을 습득하여 일상 생활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 (2)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습 어휘를 습득하고 국어 사용 능력을 갖추어 범교과의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 (3)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다양한 국어 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발전시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함양한다.
- (4)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하는 태도를 길러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가진 건전한 한국인의 바탕을 다진다.

(1)은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이해하고 남한의 발음과 억양, 어휘 등을 습득하여 일상생활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한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국어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명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목표 설정은 장차 통일 이후의 국어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이기도 하면서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가 남북한 언어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 (2)는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교육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당장 학교 생활 및 학교 적응에 필요한 학습 어휘를 습득하고 국어 사용 능력을 갖추어 범교과적인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2)는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 교과서가 현실적으로 국어 학습 부진을 극복하도록 돋는 보충 교재의 성격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하게 지지해 준다.
- (3)은 정의적 차원에서 탈북학생들을 위한 국어교육이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다양한 국어 활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발전시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대개의 탈북학생들이 탈북과정을 통해 굽주림, 탈출과 은신 등의 경험을 통해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3)은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 교과서가 단순히 학습 부진을 극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긍정적 가치를 주제로 하는 좋은 읽기 자료나 자기 표현적 글쓰기 활동 등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치유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함양하는 방향에서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4)는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교육이 국어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하는 태도를 길러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가진 건전한 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돋는 보편적 국어교육이 되어야 함을 명시한 교육 목표라 할 수 있다. (4)는 통일 대비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 교과서는 단순한 보충 교재의 차원을 넘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함양하는 보편적 국어교과관을 기반으로 해야 함을 지지해 준다.

요컨대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는 심각한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탈북학생의 국어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보충 교재의 성격뿐만 아니라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함양하고 남한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보편적 국어교과관에 기초한 표준 교재의 성격을 아우름으로써 통일 이후의 국어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

2.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의 내용

본 절에서는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2012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과 표준안>을 일차 준거로 하여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012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과 표준안>에서는 국어 교육의 내용을 소통 영역, 학습 영

역, 치유 영역, 공존 영역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 네 영역은 다음 <표 2>와 같이 각기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인식하고 해소하는 ‘언어 적응 능력’, 범교과적 학습 능력의 바탕이 되는 ‘학습 적응 능력’, 이해·표현 활동을 통한 내적 치유 및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반성적 성찰 능력’, 민주 시민, 세계인으로 성장하는 데 기초가 되는 ‘상호 문화 이해 능력’을 구인으로 하는 목표 능력과 그 구체적인 내용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표 2.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과 표준안의 내용 영역

영역	목표 능력	내용 요소
소통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적응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의사소통 - 사회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언어 및 의사소통 행위의 차이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일상 어휘 및 표현 - 남북 화용 차이 - 남북 발음 억양 차이
학습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적응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환경의 적응 - 기본 소양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문식성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어휘의 이해 및 활용 - 범교과적 학습 방법 이해(발표, 토론, 추론, 요약, 질문 등) - 학습 공간 내의 소통(교사-학생, 학생-학생 간 상호작용) - 언어 및 문학적 적성과 소질 계발
치유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성적 성찰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적 치유 - 건강한 정체성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활동을 통한 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표현 활동을 통한 치유 - 문화 감상 및 창작을 통한 감수성 회복 - 긍정적 자존감(소중한 나) - 트라우마 치유
공존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문화 이해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 시민, 세계인으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위한 국어 능력의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문화 공유를 위한 상호 문화 문식성 함양 - 남한 문화 인식 → 이해 → 상대화 → 수용 - 다문화와 통일 한국 구성원으로서의 세계관 확립

이러한 국어과 표준안의 내용 영역 요소들은 탈북학생의 교육 요구와 특수성에 맞게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대체, 융합, 축소, 추가, 삭제 등의 변용 과정을 거쳐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 개발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표 2>의 <2012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과 표준안>에 기초하여 통일 대비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

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1) 최소한의 필수 학습 내용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는 탈북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학년 수준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최소한의 필수 학습 내용 요소(minimum essential)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도록 한다. 탈북학생들이 오랜 탈북 과정으로 인한 학업 결손으로 인해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방치하거나 그 학년 수준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학습의 기회를 제한한다면 이들의 학습 부진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탈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그 학년 수준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 요소를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압축해서 교재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2) 긍정적 가치를 주제로 하는 제재 글

교과 내용을 구성 조직할 때 탈북학생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들이 탈북 과정을 통해 갖게 된 트라우미를 치유하고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하는 제재 글을 선정하여 수록하도록 한다. 사회적 편견이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한 위인의 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순전함과 용기를 잃지 않는 주인공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보여 주는 제재 글들을 교재화하도록 한다. 이러한 제재 글을 통해서 탈북학생들은 고난 극복의 의지, 선한 마음, 정의, 진실, 자존감 등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긍정적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3) 남북한의 언어 및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내용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는 남한의 표준어를 바탕으로 한 남한 문화의 우월성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름’에 주목하여 남

북한의 언어 및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하도록 한다. 남북한 어휘의 차이, 억양 및 발음의 차이, 화용상의 특성, 언어 문화 적응, 문화적 배경 지식, 북한과 다른 남한의 관계 지향적 대화 방식 등의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서로 다른 대안에 대한 이해를 돋고 남북한 언어 및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도록 한다.

(4) 어휘 차이에 주목한 어휘 학습 내용 제공

남북한 언어 이질화로 인해 서로 다른 의미와 용법으로 사용되는 어휘나, 전혀 생소한 학습 어휘, 외래어 등을 중심으로 이해 어휘 및 표현 어휘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어휘들의 뜻을 쉽게 풀어 주거나 그 어휘에 해당하는 북한의 어휘를 함께 제시해 주도록 한다. 교과서의 날개와 처마, 박스 등의 장치를 십분 활용하여 교과서 내용 이해에 필요한 주요 핵심 어휘, 제재 텍스트 이해에 꼭 필요한 관련 배경 지식, 남북한 어휘의 의미 차이와 사용법, 서로 다른 학습 용어와 개념 이해를 위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탈북학생의 이해를 돋도록 한다.

(5) 이해 가능한 수준의 입력 제공

탈북학생의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단시간 내에 학습 결손을 보충하고 국어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픽 조직자나 도표 등을 활용하여 관련 지식을 이해 가능한 수준의 입력 형태로 구조화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학습만화나 실물 자료의 사진, 흥미로운 삽화 등 직관적인 자료의 비중을 높이고 폐이지나 판형 크기 조절 등의 편집의 묘를 살려서 교육 내용을 이해 가능한 수준의 입력 형태로 변용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높이고 학습자의 국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도록 한다.

(6) 남한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

탈북학생의 남한 적응을 돋는 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외래

어나 북한과 다른 남한 어휘, 광고, 인터넷 용어, 유행어 등을 선정하여 수록하도록 한다.

3.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

교과서는 교수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화해 놓은 교수 학습 자료로서 실제 교수·학습 과정을 조절하고 안내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서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교수·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조절하고 안내하는 방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교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모름지기 좋은 교과서란 뚜렷한 학습 도달 목표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적절하게 선정·조직하여 제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일련의 교수·학습 과정을 안내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원진숙, 2000), 이러한 기능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는 단원을 기본 단위로 하여 구성되며 실무 수업도 이 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교과서가 어떠한 단원 구성 체제를 취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교재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수업의 질적 측면까지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지주의 심리학의 관점에 따르면 학습자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매우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존재이다. 즉 학습자들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행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것을 연합해 나갈 수 있을 때 원활한 학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심각한 학습 결손 상태에 있는 탈북학생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차시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이미 선수 학습 요소로 배워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나 본차시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지식을 정리해서 교육 내용으로 제공해 주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어 교과서를 개발한다

면 단원 도입 단계에서 이미 이전 학년 단계에서 학습했어야 했을 선수 학습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해 주는 방식을 통해서 탈북학생의 심각한 학습 결손을 보충해 주고 차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인지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에 기초한 대부분의 중학교 검정정 국어 교과서가 일련의 인지적인 사고 과정과 절차를 통해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심화 학습을 유도하는 대단원 중심 체제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탈북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단원 중심 체제를 채택하기로 한다. 탈북학생 대상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학습자의 부족한 기초 학습 능력을 최대한 고려하여 그 학년 수준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최소한의 교육 내용을 잘게 쪼개서 명확하게 교수하는 소단원 중심 체제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수업 구조와 연계되는 제반 수업 단계의 특징 을 충분히 고려하여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의 틀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구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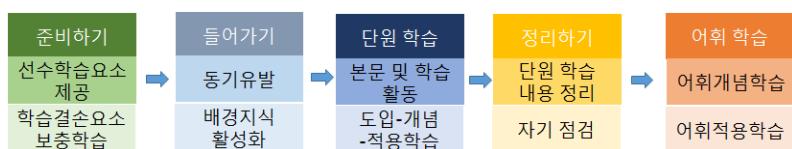


그림 1.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

(1) 준비하기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그 단원의 중심 내용(notion)을 핵심적으로 드러내 주는 단원명과 함께 교수 학습 목표, 학습 활동이 명시적으로 제시됨으로써 학습자가 그 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갖도록 한다. 또한 해당 단원 학습에 필요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탈북 학생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이전 단계에서 이미 학습했어야 했을 선수 학습 요소를 압축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탈북학생의 학업 결손을 보충해 주도록 한다.

(2) 들어가기

들어가기 단계는 본시 학습을 위한 학습자의 동기 유발 차원에서 구안된 것으로 단원의 중심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준비 과제(warm-up task)가 제시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3) 단원 학습

단원 학습은 해당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을 적절한 학습 방법과 절차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조직화하여 제시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어휘 능력 및 읽기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탈북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시글의 내용은 분절하여 토막글 형식으로 잘게 쪼개서 제시한다. 단락별로 캐릭터 학습 도우미가 말풍선의 질문을 제시하면서 읽기 방법으로서의 전략의 시범을 보여 주도록 한다. 또한 텍스트의 날개 부분에 주요 학습 어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는 방식을 통해 학습자의 부담을 줄여 주고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한다. 아울러 학습자가 앞서 배운 내용을 강화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해서 그 기능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한다.

(4) 정리하기

정리하기 단계에서는 단원 학습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해 주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정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간단한 자기 평가 문항을 제시한다.

(5) 어휘 학습

탈북학생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어휘 학습임에 주목하여 매 단원 끝부분에 어휘 학습란을 두도록 한다. 가급적 남한 어휘를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방식보다는 남한어와 북한어를 대등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그 언어적 차이를 인식하고 새로 접하는 남한 어휘에 친숙해지도록 한다. 쉼터 형식으로 제공되는 어휘 학습은 해당 단원에서 다루는 제재나 주제와 관련되는 것들로 하나의 의미장(意味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로 선별하되, 속담, 관용어, 한자 성어, 같은 뜻을 가진 북한어와 남한어, 통신언어, 사고도구어, 외래어 등을 수록한다. 이러한 어휘 학습은 학습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사다리타기, 십자말풀이, 낱말 퍼즐, <보기>에서 맞는 것 골라 써 보기, 연결해서 선 긋기 등의 방식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단원 구성 체제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과서가 대단원 중심 체제로 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소단원 중심 체제로 되어 있다는 점, 선수 학습 요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 결손 요소를 보충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준비하기 단계를 설정했다는 점, 탈북학생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어휘 능력을 보강해 주기 위해 의미장을 중심으로 한 어휘 개념 학습과 적용 학습을 유도하는 어휘 학습 단계를 매 단원의 말미에 추가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단원 구성 체제는 심각한 수준의 학습 부진 상태에 있는 탈북 학생의 국어 능력을 끌어올리는 맞춤형 보충 교재의 성격을 담보하면서도 자칫 기초 기능을 가르치는 데 함몰되지 않고 보편적인 국어교육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V. 결론

이제까지 본고에서는 통일 대비 국어교육 기반 구축 차원에서 바람직한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의 성격을 규정하고 현실적으로 국어 교과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학생의 국어 능력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국어 교과서의 내용과 단원 구성 체계를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중학교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 개발 작업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분단 70년간 서로 달라진 남한과 북한의 언어 이질화 양상 및 학습자 대상인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분단 이후 달라진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의 차이와 남한과 북한의 국어교육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목표와 내용, 방법 면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현시점에서 중학교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 교과서 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 이후의 국어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한 최초의 교육과정 문서인 <2012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과 표준안>을 일차적 준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그 교육 목표와 내용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탈북학생의 국어과 학업 성취 특성과 탈북학생 및 지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앞선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탈북학생의 국어과 학업 성취 특성을 보완하고 보다 현실적인 교과서 개발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는 분단 이후 서로 달라진 남한과 북한의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보편적 국어교과관을 기반으로 하는 표준 교재의 성격을 지향하면서도 국어 교과 학습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충 교재의 기능을 함께 아우를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맞춤형 보충 교재의 기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탈북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어 교과서의 내용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로 최소한의 필수 학습 내용 요소, 긍정적 가치 중심의 주제를

담은 내용, 남북한의 언어 및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내용, 서로 다른 용어와 개념의 이해를 위한 정보 및 제재 텍스트 이해에 필요한 어휘 학습 및 배경 지식 제공, 이해가능한 수준의 입력 제공, 남한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 등을 추출하였다.

아울러 탈북학생 대상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를 구안함에 있어 교과 학습에 필요한 선행 배경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탈북학생의 특수성을 십분 고려하여 소단원 중심 체제와 도입 단계에 선수 학습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 결손을 보충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준비하기 → 들어가기 → 단원 학습 → 정리하기 → 어휘학습의 체제를 기본 축으로 하는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는 탈북학생의 국어 능력을 끌어올리는 맞춤형 보충 교재의 성격을 담보하면서도 자칫 기초 기능을 가르치는 데 힘들되지 않고 보편적인 국어교육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을 함양하는 표준 교재의 성격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본고에서 시도한 탈북학생 대상 중학교 국어 교과서 개발 작업은 단기적으로는 탈북학생의 국어과 학습 적응을 위한 보충 교재 개발의 성격을 지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 시대의 국어교육을 준비하는 사전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언어와 언어문화의 통합의 기반이 되는 국어교육일 것이기 때문이다.

* 본 논문은 2015. 4. 30. 투고되었으며, 2015. 5. 6. 심사가 시작되어 2015. 6. 3.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보선(2013),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유형 및 선정 방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7, 국어교육학회.
- 권순희(2014),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현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4 No.10,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권순희·원진숙·김은성·주재우(2012), 『탈북학생을 위한 국어과 표준안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길은배·문성호(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힘의」, 『청소년학연구』 10(1), 한국청소년학회.
- 김미숙(2004),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과정 실태분석 연구』, RR2004-02, 한국교육개발원.
- 김부경·김대희(2014), 「탈북학생의 쓰기 태도와 쓰기 효능감 양상 연구」, 『작문 연구』 21, 한국작문학회.
- 김선철·김건희(2009), 「남북한 교과 용어의 어휘론적 차이에 대하여—9개 교과를 대상으로」, 『언어학』 55, 대한언어학회.
- 김영란(2013), 「탈북학생의 국어과 학업 성취도 분석—2011 초6, 중3, 고2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6,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혜정(2013), 「남북한 언어 이질화와 그 극복을 위한 교육 방안」, 『한글연구』 33, 한글연구학회.
- 문금현(2006),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박영목·이인제(1998), 「통일에 대비한 국어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 양수경·권순희(2007), 「새터민 면담을 통한 남북한 화법 차이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 원진숙(2000),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 체계 개선 방안」, 『이중언어학』 17, 이중언어학회.
- 이수연(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5(1), 한국청소년학회.
- 이인제(2005), 「통일 한국의 국어교육과 교육 과정 통합의 방향」, 『국어교육』 117, 한국어교육학회.
- 이인제·민병곤·이재기(2002), 「북한의 읽기 교육 현황 분석—교수 요강 및 교과서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7, 한국독서학회.
- 이향구(2007),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 적응 실태와 과제」, 『인간연구』 12,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 전수태(2010), 「남북통일시대의 국어교육의 방향—분단국의 통일공간과 교육 용어」, 『국어교육』 131, 한국어교육학회.
- 정경일(2002),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 실태」, 『사회언어학』 10(1), 한국사회언어학회.

- 한만길 외(1999),『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교육 적응 연구』, RR99-11,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 외(2013),『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IV)』, 연구보고 RR 2013-07, 한국교육개발원.
- 홍순혜 외(2010),『학교 밖 탈북 청소년 교육·적응 실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홍종선(2013),『민족어의 통합 통일과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민족문화연구』5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탈북학생 대상 중학교 국어 교과서 개발 방안

원진숙

본 연구는 통일 대비 국어교육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탈북학생용 국어 교과서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탈북학생용 국어 교과서 개발 작업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분단 70년간 서로 달라진 남한과 북한의 언어 이질화 양상 및 학습자 대상인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분단 이후 달라진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의 차이와 남한과 북한의 국어교육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목표와 내용, 방법 면에서 검토하였다. 아울러 탈북학생의 국어과 학업 성취 특성과 탈북학생 및 지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앞선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탈북학생의 국어과 학업 성취 특성을 보완하고 보다 현실적인 교과서 개발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고에서는 통일 대비 탈북학생용 국어 교과서는 단순한 보충 교재의 차원을 넘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국어교과관을 기반으로 하는 표준 교재의 성격을 함께 지녀야 한다는 것과 탈북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어 교과서의 내용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 및 바람직한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를 제안하였다.

핵심어 탈북학생 대상 국어 교과서, 언어 이질성, 단원 구성 체제

ABSTRACT

Developing a Middle 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Won Jinso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developing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the students who emigrated from North Korea to prepare the integrated Korean language education system in a Reunification Era.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have difficulty adapting themselves to their new schools in South Korea in communication, learning, culture, identity, and so on. Developing Korean language textbook can help them overcoming the language and education heterogeneity proble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We have focus group interviewed teachers who teach the refugee students and students from North Korea and analyzed their needs for the Korean Language Textbooks. Reflecting their needs, we have established the character of the textbook not only as a make up for their lack of learning but also as a standard textbook for enhancing critical and creative linguistic competence. In addition, we proposed requisites in selecting education contents and the text unit constructing scheme for the standard textbook for the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KEYWORDS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language heterogeneity, text unit constructing scheme